

석사학위논문

청소년 가출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현 수 진

2003년 8월

청소년 가출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양길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출자 현수진

현수진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03년 7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국문초록>

청소년 가출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

현 수 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지도교수 양 길 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물질만능주의와 함께 청소년의 가출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청소년 가출의 수는 매년 10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기관 및 단체, 선행연구를 통한 청소년 가출의 원인 및 실태 그리고 예방대책을 찾아 정리함으로써 청소년 가출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제주 지역의 청소년 가출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주지역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는 어느 한 가지에만 한정될 수 없다. 청소년의 가출은 그들 자신과 그들에게 작용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가정의 기능 상실과 부모와의 갈등,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학교 교육, 불량교우와의 만남 등이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외국문물의 유입은 전통문화와 도덕성의 붕괴를 가속화 시켰고, 소비·향락적인 사회환경요인 등도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은 사회 내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증가로 연결되는가 하면 성인폭력 조직 및 퇴폐향락 산업의 부흥·발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친구까지 끌어들여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을 양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가출은 사전 예방이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에 제주도내에서만 가출한 청소년은 제주지방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인원만 316명이나 이는 신고되지 않은 인원이 많을 것 같아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예방 대책으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처벌이나 일시적인 보호 및 수용차원의 서비스만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을 막을 수 없다.

이에 청소년 가출을 최소화하고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제도 및 학교교육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 문화시설 및 컴퓨터 설치·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가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통합적 연결지 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03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및 제한점	4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 가출의 개념	7
2. 청소년 가출의 유형 및 특징	10
3. 청소년 가출의 원인	18
III. 제주도 청소년 가출의 실태	28
1. 청소년 가출의 실태	28
2. 제주도 청소년 가출의 실태	33
IV.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	46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46
2. 가출청소년 서비스 체계 및 지지체계망의 확립	51
3. 가정·학교·사회에서의 대책	58
V. 결론 및 제언	69
참고문헌	75
ABSTRACT	78

표 목 차

<표 2-1 > 가출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	12
<표 2-2 > 가출소녀들의 가출동기.....	21
<표 3-1 > 가출 경험	29
<표 3-2 > 가출 청소년의 남녀비율.....	30
<표 3-3 > 가출인 발생 및 처리상황.....	32
<표 3-4 > 2001년도 제주도 청소년 가출실태.....	40
<표 3-5 > 2002년도 제주도 청소년 가출실태	41
<표 3-6 > 2002년도 월별 추가 가출학생 수.....	42
<표 3-7 > 가출청소년의 남녀별 현황.....	44
<표 3-8 > 가출청소년의 가출 동기.....	4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단기간에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는 올바른 가치관이 미처 정립되기도 전에 물질적 만능주의라는 부작용과 함께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 비행의 증가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 비행 중 청소년의 가출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실제로 청소년 단체 등의 각종 설문조사를 참고할 때 청소년 가출의 수는 매년 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백서에 의하면 20세 미만의 가출청소년은 1998년에 15,316명, 1999년에는 17,894명에서 2000년도에는 18,442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¹⁾

매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출 청소년의 수는 정확한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고서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실제 청소년의 가출은 발표된 통계치보다 훨씬 많다고 볼 때 가정을 등지고 길거리를 떠도는 청소년의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주유소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 수가 있어 친구들과 같이 가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최근 원조교제가 늘어나면서 여학생들의 가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가출이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이다. 가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정, 학교, 사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현실도피 행위로써 집을 나가는 행

1) 경찰청(2001), 『청소년 백서』,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p.510.

위'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따라서 가출은 기존 사회의 사회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가출은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철저하게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출은 마약, 알콜, 비행, 성생활 문란, 그리고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 가출은 사회 내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증가로 연결되는가 하면 성인 폭력 조직 및 퇴폐향락 산업의 부흥·발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친구까지 끌어들여 또 다른 가출 청소년을 양산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 가출은 사전 예방이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유흥업소들은 급속히 늘어나고 이들의 피해는 심각한데 비해 이를 개인이나 가정문제 위주로 생각하며 가출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루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에 제주도내에서만 가출청소년이 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제주상담센터와 제주지방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인원만 316명이다. 이는 지난해 314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현실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인원이 많을 걸 감안한다면 제주도의 가출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출청소년들의 양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이들이 절도, 폭력, 매춘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노리고 악용하려는 범죄집단이 엄연히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²⁾

(사)제주상담센터(이사장 양정국)가 주최한 2002 민간단체지원사업 포럼이 지난 8월 29일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접근과 비전 제시'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순임 제주상담센터 소장은 "제주도의 경우 요보호 아동·청소년 발생 건수 중 비행, 가출, 비

2) 『제민일보』 사설, 2002. 12. 25.

행아동 발생수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나 욕구조사 등의 연구는 물론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없었다”고 전제한 뒤 “가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가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허순임 제주상담센터 소장은 “가출청소년들을 단순히 ‘문제아’로 낙인찍고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사회간접비용은 엄청나다”면서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로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복지서비스의 향상, 가출지원 거리상담소 설치 등의 방법을 동원해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³⁾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에만 한정될 수 없다. 청소년의 가출은 그들 자신과 그들에게 작용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환경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처벌이나 일시적인 보호 및 수용차원의 서비스만으로는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반복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을 막을 수 없다. 청소년의 가출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청소년 가출의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분석하여 청소년 가출의 예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제민일보』, 2002. 8. 29.

2.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제한점

1)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가출의 원인과 그 실태 및 예방 대책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자료 가운데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용교(1993)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에서 청소년 가출은 단일 요인에 의해서 보다는 결손가정이나 가정불화와 같은 ‘가정문제’에서 배태되어, ‘학교성적’이 떨어질 경우 강화되고, 또래 친구(이성친구 포함)로부터 가출 유혹을 받아 일어나는 ‘복합적인 사건’이라고 보았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과 성적위주의 교육이 청소년을 가출로 ‘내미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또래집단의 압력과 유흥업소 등 유해한 사회환경은 가출하도록 ‘끌어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정자(1973)는 「청소년 가출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에서 가출은 가족 해체 또는 가족의 기능수행에 있어서의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역할습득과 사회화 과정이 저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3) 전유자(1982)은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에서 급속하게 변동하는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상호간에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이 나타나고 이것이 세대적 갈등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여 가출을 초래할 수 있는데, 즉 세대차이로 인하여 성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고 세대간의 사고방식에 차이가 심해지면 청소년은 성인이나 부모에 반항하며 정신적 갈등 및 혼란과 대립을 유발하게 되고, 이것이 가출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4) 권윤아(1997)은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유형분석」에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친구의 비행, 가족 기능, 소속반, 성적,

우울과 경조성, 세대간의 전이로, 친구의 비행정도가 높고 비행 친구가 많을수록, 가족이 역기능적일수록, 야간반 학생일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우울과 경조성이 높을수록, 부모가 청소년기 때 가출한 경험이 있을수록 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가 있었지만 특히 제주지역과 관련된 가출 청소년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기초로 그 원인을 정리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과 한계가 있다.

첫째, 제주지역의 청소년 가출문제를 중점으로 다루는데 있어 그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한 설문지 및 면담에 의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감이 다소 부족한 편이다.

둘째, 상담기관 및 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방 일간지 기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 나름대로 객관성을 제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자료는 여전히 잠정적이다.

셋째, 청소년 가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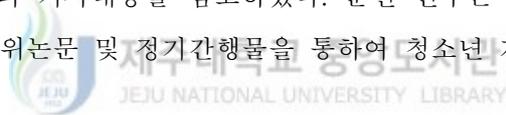
넷째, 본 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제주도경찰청이 집계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주도 청소년 전체 범위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1) 청소년 가출의 특성을 가정적, 교육적, 사회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및 지역사회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2) 청소년 가출의 현황을 제주지역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3) 청소년 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문헌 연구와 각 기관의 통계자료 그리고 지방일간지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였다. 문헌 연구는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단행본, 석·박사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청소년 가출에 관한 내용을 기술·정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가출의 개념

이 연구는 성인들의 가출이 아닌 청소년의 가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청소년기는 이성에 의한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특성상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셋째, 청소년 가출과 같은 탈선적 행위가 일과성의 성격을 띠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형 또는 보다 심각한 내용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⁴⁾

이렇게 청소년 가출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가출 청소년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상이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다루어지면서, 아직 가출 청소년의 개념에 대해 합의된 조작적 정의는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인 바 있는 가출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의 가출을 지위범행, 문제행동, 일탈행위, 불량행위, 요보호 행동 등의 광의의 의미에서 비행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행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가출 현상자체를 여타의 행위들과의 구별성을 강조하여 가출현상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취해 보려는 입장이 그것이다.

청소년 가출을 광의의 의미에서 비행의 한 형태로 파악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4) 안창규 외(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집문당, p22.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⁵⁾

첫째, 청소년 가출행동을 지위범행(status offend)으로 분류되어 왔다. 동일한 행위가 성인에게는 불법적인 것이 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의한 행위는 불법적인 것으로 지칭되는 행위로 금지적(proscriptive), 규범적(,prescriptive), 제한적(circumstantial) 성격을 띠는 하나의 지위범 혹은 신분 이탈행위로 분류된다.

둘째, 청소년 가출행동을 일탈행위로 분류되어 왔다. 일탈행동이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회구성원에게 지켜져야 된다고 믿어지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권이종(1991)은 가출을 가정폭력, 정서장애 등과 아울러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일탈로 지적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 가출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분류되어 왔다. 문제행동이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며 가정, 학교, 직장, 지역 등에서 금지되고 비난받아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송정부(1992)는 문제행동을 좁은 의미의 불량행위로 파악하고 가출을 불량교우, 불량집단 가입, 환각물질 소지 등과 더불어 퇴행적 문제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가출행동을 요보호성 행동으로 분류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이탈된 자 또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자로 미아, 고아 등과 함께 가출아동들을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가출행동을 불량행위로 분류되어 왔다. 미성년자보호법에는 불량행위 소년을 음주, 깃연, 싸움을 하거나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출을 불량행위로 분류되는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 가출행동을 우범행위로 분류되어 왔다. 소년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는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

5) 안창규 외(1995), 전제서, pp.25-27.

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위 우범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가출 현상자체를 여타의 행위들과의 구별성을 강조하여 가출현상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취해 보려는 입장이다.

가출이란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이다. 따라서 기존 사회의 사회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가정, 학교, 사회와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현실도피 행위로서 집을 나가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⁶⁾

청소년 가출에 대한 기존의 문헌에서 내려진 정의를 살펴보면 로버트(Robert)는 가출청소년이란 “부모,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를 내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⁷⁾에서는 가출을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 행위”라고 하고 있다.

나철(1992)은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행위의 역동성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밀어내는 역동과 청소년 문화권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세 가지 역동들의 합작품”이라고 정의하여 가출을 개인, 가정, 사회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이 가출청소년 조사에서 사용한 가출의 정의는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 혹은 계획적 행위”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청소년 가출에 대한 정의로는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가 1987년 편찬한 사회사업사전에서 청소년 가출이란 “연령이 10세 이상

6) 권이중(1996),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p.593.

7) 김준호(1993), 『청소년가출과 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4

8)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 가출과 비행에 관한 연구』, 창신사, p.24.

17세 이하로 부모와 책임 있는 어른의 허락 없이 적어도 밤을 집밖에서 지내는 청소년⁹⁾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면, 청소년 가출이란 자신의 정신적 갈등이나 생활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거나 떠밀려서 충동적이든 의도적이든 가족을 떠나 안주의 장소를 구하려는 일종의 도피행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버트(Robert)의 정의에 따라 가출청소년이란 “부모,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2. 청소년 가출의 유형 및 특징

1) 청소년 가출의 유형

가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가출이 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및 과정 그리고 결과에 따라 가출의 사회적 의미가 상이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출행동의 유형은 크게 추구형 가출(running to something)과 탈출형 가출(running from something)로 구분하고 있다.

추구형 가출은 집 바깥의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경우이고, 탈출형 가출은 가정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부터 나가는’ 경우이다.

탈출형 가출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정구성원들과의 갈등이나 가족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들은 가정의 갈등 대상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가출은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출형 가출은 때때로 해로움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다.

9) 김향초(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p.54.

그러나 추구형 가출은 근본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한 가출이다. 추구형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도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문제를 겪어왔지만 근본적으로 섹스, 약물, 알콜, 비행 등과 같이 가정에서 금지된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나 사람을 찾아 집을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가정을 다른 가정에 비하여 잘못되었거나 아주 다르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타입의 가출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타나거나 혹은 청소년들의 자기 탐색의 실존적 이유 때문에 야기되기도 한다.

한편 탈출형 가출을 가정 내적 요인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면 첫째, 위기에 의해서 야기된 가족의 긴장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가출, 둘째,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를 피하기 위한 가출, 셋째, 신체적으로 혹은 성적학대 상황으로부터 피하기 위한 가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탈출형 가출과 추구형 가출의 차이를 요약 정리해 비교해 보면 다음 <표2-1>과 같다.¹⁰⁾



10)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집 나가는 아이들”, 청소년가출·재가출 예방 부모지침서, p.13.

<표 2-1> 가출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¹¹⁾

	탈출형 가출	추구형 가출
가출연령	· 비교적 나이가 들어서	·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가출기간	· 비교적 단기간 가출일 가능성이 높음	· 비교적 장기간 가출일 가능성이 높음
성향	· 사색적인 성향을 지님	· 충동적인 성향이 강함
가출청소년 의 특징	· 의사결정을 할 때 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음	·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함
원인 소재	· 가정 내	· 가정 밖
목적 내용	· 해로움 회피	· 즐거움과 향락 추구

가출 유형과 관련하여 Miller 등은 가출동기를 부모 요인과 청소년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부모요인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을 희생자, 추방자, 반항자로 명명하였고, 청소년 자신의 요인으로 인한 가출자를 도망자, 피난자, 이민자로 명명하였다. ‘희생자’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및 폭행을 당한 청소년이고, ‘추방자’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쫓겨난 청소년인 경우이며, ‘반항자’는 부모와 심각한 싸움이나 갈등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이다.

청소년 자신이 갖는 문제가 원인이 되어 가출하는 유형으로서 ‘도망자’는 자신이 범한 문제행동에 대한 처벌이나 구속 등이 두려워 도망 나온 청소년이며, ‘피난자’는 가족이 없고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도망 나온 청소년인 경우, 그리고 ‘이민자’는 즐겁지 않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벗어나 자유와 모험을 찾아 가출한 청소년이다

11)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상계서, p. 13의 표를 보완하였음

Robert는 가출 청소년을 ‘가출탐험가’, ‘가출조작자’, ‘가출피난자’, ‘위기에 처한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가출탐험가’는 모험심 때문에 그리고 독립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때때로 친구와 함께 여행하고자 가출을 갈망한다. ‘가출조작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위성가출’이라 볼 수 있다. ‘가출피난자’는 가출조작자가 직면한 갈등보다도 더 강한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으로부터 충동적으로 달아나고자 가출을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가출 청소년’은 신체적 학대나 성적인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한 청소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연구원(1993)의 최근 자료는 가출의 유형을 가출의 결과, 가출의 준비단계 및 가출의 횟수로 분류하여 가출 청소년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결과에 따른 가출로 ① 가족구성원들의 관심획득을 위주로 하는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제한적인 성격의 시위성 가출과 ② 긴장유발적인 가정 전체로부터의 탈출이나 거부를 지향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시위성 가출에 비해 보다 전면적, 적극적인 도피성 가출 ③ 가정으로부터 버려지거나 쫓겨나는 형식을 위해서 가출을 하게되는 추출성 가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출의 준비의 성격에 따라 ① 충동적 성격의 가출과 ② 계획적 가출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가출의 횟수에 따라 ① 일과성 가출로서 한 번쯤 부모의 보호와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 가출유형이며 ② 그 원인이 외부요인이었던 아니면 내부요인이 되었던 간에 반복적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한편 한국청소년연구원(1991)은 동반가출 인원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가출형태를 구분하였다.

첫째, 개인적 가출은 혼자서 가출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둘째, 집단적 가출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일어나는 가출형태로 가출기간도 길고 다른 비행과 범죄 등을 일으키는 비율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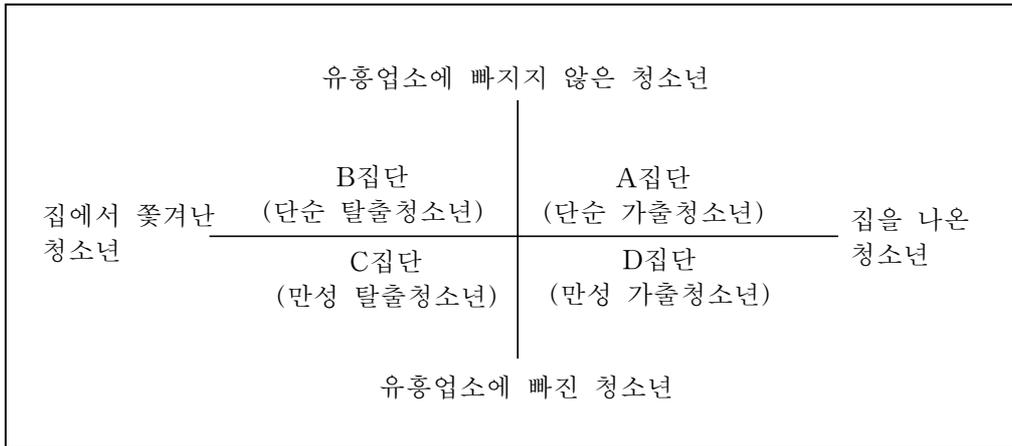
셋째, 연쇄적인 가출로서 먼저 가출한 청소년이 연결되어 또 다른 친구를 끌어들이는 유형으로 역시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다.

또한 이용교는 가출충동의 빈도, 가출경험 횟수, 가출 후 밖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가출 후 유흥업소 취업 여부를 한 변수로 보고 가출동기가 집에서 스스로 나온 경우인지 아니면 쫓겨난 것인지를 다른 한 변수로 하여 가출 청소년을 <그림2-1>과 같이 유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¹²⁾ 즉 단순가출, 만성가출, 단순탈출, 만성탈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단순가출과 만성가출은 Homer식 추구형으로서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만성가출이 되고 업소에 취직하지 않으면 단순가출로 끝난다. 단순탈출형과 만성탈출형 가출은 괴로운 가정에서 벗어나고파 집을 나온 경우로서 단순·만성의 갈림길은 유흥업소라는 것이다.¹³⁾

12) 안창규 외(1995), 전계서, p.31.

13)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p.12.

<그림 2-1> 가출청소년의 유형분류



출처 : 이용교(1992)

박부일도 가출의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개인적인 가출로서 근래의 가출청소년 비율에서 비교적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

둘째, 집단가출로서 불량한 친구와 어울리면서 일어나는 가장 보편적인 가출형태이다. 가출의 기간은 비교적 장기적이며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셋째, 줄줄이 가출로 특히 여아들에게서 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집단으로 가출한 여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유홍업소에 종사하면서 친구들을 다시금 끌어들이게 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넷째, 무료함에 의한 재가출과 공갈협박에 의한 재가출 등으로 다소 습관적 가출이다.

2) 청소년 가출과 비행

해마다 가출청소년은 생기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소년이 가출에 따라 생겨나는 각종 범죄, 비행 등 사회적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회가 가출 청소년을 수용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거리를 헤매는 가출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그들 부모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비록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 지역만이라도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2년 들어 제주도내에서만 가출청소년이 4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다. 제주상담센터와 제주지방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인원만 316명이다. 이는 지난해인 2001년도의 314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인원이 많을 걸 감안한다면 가출 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가출 청소년들의 양산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게 이들이 절도, 폭력, 매춘 등 각종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노리고 악용하려는 범죄집단이 엄연히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 문제는 무엇보다도 무관심에서 비롯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가출 청소년 본인에 있다지만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 왔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가출 청소년을 보면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도내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이 단 한 곳만 있다는 것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기성세대들은 이들을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정·학교·사회가 여건조성을 해야 한다.¹⁴⁾

많은 정신의학자 및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가출을 비행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넓은 의미의 청소년비행은 형벌법규를 어긴 범죄, 비위, 위법 등 반사회적 행위와

14) 『제민일보』 사설, 2002년 12월 25일 수요일

의무불이행, 과실, 부도덕한 행위를 지칭한다. 보통 범죄라고 규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일,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무단 이탈하는 행위, 불량 친구, 유해업소 출입, 상습적 퇴학, 구박, 성적행위,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위해하는 행위 등 청소년에 금지되어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위범이라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 하겠다.¹⁵⁾

그러나 사실상 가출은 비행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보다 큰 여타의 비행을 낳는 촉매로 보아야 함이 옳을 것이다. 권이중(1993)도 청소년 비행을 절도, 살인, 강도, 방화, 폭행, 상해, 공갈, 협박, 횡령, 도박, 장물, 사기, 교통, 약물 등으로 가출을 제외시켜 분류하고, 이들 비행의 공통점 중의 하나로 가출을 포함시킨 바 있다.

가출을 비행과는 다른 차원에서 비행을 낳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보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¹⁶⁾

첫째, 가출이란 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재(가정), 통제 혹은 훈육자의 부재(학교)로 인한 청소년에 대한 통제의 결여상태를 빚어내기 때문에 또 다른 비행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가출은 청소년들을 바깥세계의 유해환경과 접촉하고 관련하기 쉽도록 유인하는 상황에 무방비상태로 몰아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출시에 재가시보다 그들을 비행으로 유인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부일(1992)은 가출한 여학생의 경우 거의 전부가 유흥업소나 서비스업종 즉, 카페, 룸싸롱, 레스토랑 등에 취업하여 90%이상이 윤락행위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또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탈출구는 불량유흥업소 외에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다른 선행 연구들(안창규 외,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에 의하면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통제집단보다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특히 가출은 비행을 유발·상승시키는 중요한 전제

15) 안창규 외(1995), 전계서, p.34.

16) 상계서, p.35.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의 연구에 의하면 재가시보다 가출시에 더 많은 비행과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며, 가출횟수가 많을수록 비행이나 범죄에의 노출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성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고 노숙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각종 비행과 연루되어 개인적으로나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3. 청소년 가출의 원인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출의 원인으로 가정해체, 빈곤, 불량교우, 부적절한 학교교육, 가정불화, 결손가정, 지능의 결함, 유전, 성격의 결함, 정서장애, 모방, 욕구불만, 애정의 결핍 등과 같이 어떤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일원적 원인론과 이들의 복합적인 요인의 결합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다원적인 원인론이 그것이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 연구(1997)에 따르면, 실제로 가출해 있는 소녀들이 응답한 가출동기는 복합적인 요인들로 부모 및 가족에 의한 신체 폭력,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집·학교가 무조건 싫어서,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해서 등 가출의 요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표2-2>.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가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⁷⁾

1) 개인적 요인

가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는 접근은 가출청소년에게 심리적·정신적 이상 또는 부정적인 태도 등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가출이나 비행의 1차적

17) 안창규 외(1995), 전계서, pp.54-55.

인 책임은 자신의 행동선택에 있음을 의미한다. 정신병리학적 모형으로 구분되는 이 주장은 가출자들은 낮은 충동통제, 신경증, 해소되지 않은 외디프스 콤플렉스, 심한 자기장애적 인격장애, 낮은 자아개념과 같은 개인적·심리적 혼란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출을 파악하는 입장이다(Roberts, 1987).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학적 접근으로서, 정신분석이론, 성격이론, 정신병질적 이론들이 그 토대를 이루며 발달하였다.¹⁸⁾

가출의 원인이 되는 개인 내적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⁹⁾

첫째, Roberts의 연구에서 가출청소년들은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을 잠자기, 울기, 알코올이나 약물로 돌리기, 자신들의 삶의 주요 요소들에 대해 망각해 버리기, 자해 시도 등의 불충분한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 문제에 직면하기 보다 그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옮겨버리는 파괴적 사고 방식을 가진다.

둘째, Reilly는 가출소녀들은 동일 연령의 비가출소녀들에 비해 보다 공격적이고,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쉽게 흥분하며, 거짓말을 잘하며, 돈을 훔쳐내거나 무단결석을 일삼는다. 또 박탈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남아들에 비해 무시당하는 경험이 많았다.

셋째, 이정자(1973)는 가정을 이탈하는 아이들의 성격상의 징후를 다음과 같은 용어로 설명한다. 즉 방일성(멋대로 꺼림없이 노는 것), 의지부연성, 유약성, 충동성, 흥분성, 경조성(언행이 진중하지 못하고 가벼움), 음울성, 편집성, 자아강력성, 자아유연성, 괴리성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성격은 아이들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기보다는 반항이나 혐오스런 대상으로 삼고 충동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심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정상적인 성격이나 자아감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비행이나 가출로 유도되지 않을 불리한 상황적

18) 정신분석이론에서 보면 성장과정에서 초자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자아가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본능이나 욕구에 의한 충동에 의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이것이 바로 가출행위를 포함한 비행을 낳는다는 것이다.

19) 상계서, pp.57-58.

요인에 냉정하고 긍정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넷째, 가출 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하여 낮은 자아개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기 의심이 많으며, 방어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들은 비가출 청소년과 비교할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한 낮은 통제감을 느끼며 평정감도 낮다.

2) 가정적 요인

최근에 발표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1997)에 따르면, 실제로 가출해 있는 소녀들이 응답한 가출동기는 과반수가 가족요인 때문이다. 현재 가출 중에 있는 소녀들이 직접 진술한 가출 동기 중 57%가 가족요인 때문이고, 학교 및 또래 요인은 24%, 개인적 요인은 17%를 차지한다(표2-2)²⁰⁾고 할 때 가정환경은 청소년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하겠다.

10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엔티카(대표: 박수정, 홍성주)에서 지난 2003년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일주일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출 동기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모와의 갈등”이 61%로 가출 동기 1위로 꼽혔다. 총 9822명이 참가한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 “가출을 생각했다면 그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투표 참가자의 61%(6,020명)가 “부모와의 갈등”을 1위로 꼽았고 그 뒤를 이어 청소년기의 반항심(18%), 학교에 가기 싫어서(11%), 성적부진으로(5%), 친구들이 괴롭혀서(2%), 친구들의 유혹(1%)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이 61%를 차지해 18%로 2위를 차지한 “청소년기의 반항심”과 큰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볼 때 가정 외적인 요소보다는 가정 내 문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출 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20)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가출청소년쉼터 운영모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98-06, pp.12-13.

21) <http://www.entica.com>

<표2-2>가출소녀들의 가출동기

문제 유형	가출중인 소녀들의 의견		보호전문 실무자들의 의견	
개인적인 요인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학교가 무조건 싫어서, 답답해서(4) · 일시적 충동(3) · 자유롭고 싶어서, 노는 것이 좋아서(2) · 사회에 대한 호기심(2)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 학교가 싫어서(5) · 가정파괴로 인한 불안감, 소외감, 가정에 대한 기대감 상실(4) · 돈을 벌기 위해서(3) · 자유로움을 찾아서, 마음껏 놀고 즐기기 위해서(3)
가족 요인	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가족의 신체 폭력(11) · 부모의 이혼, 재혼, 가출(10) · 부모의 잔소리, 부모와의 갈등(8) · 부모불화(5) · 부모의 무관심, 차별대우(4)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이혼, 재혼, 결손가정(8) · 부모의 불화(7) · 부모와의 갈등(불만, 반발), 부모의 이해부족(6) · 가족내 정서적지지 결여, 대화부족(5)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가정환경(5) · 부모의 간섭, 방임, 무관심(5) · 부모의 신체학대, 가정폭력(4) · 알콜중독 부모 (4) · 부의 강압적인 태도, 이중모습(3) · 가정교육의 부재(3)
학교 및 또래 요인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 태만, 입시위주의 공부가 싫어서(6) · 또래부적응(놀림, 친구 없음, 열등감)(3) · 가출친구의 유혹(3) · 체벌, 단체체벌(2) · 이성문제(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위주 교육, 편협한 진로교육(10) · 성적비관,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8) · 학교 중도 탈락(자퇴, 정학)(7) · 친구의 유혹, 좋지 못한 친구, 선·후배관계(8) · 이성문제(5) · 억압된 학교환경(4)

사회 적인 요인	2%	· 취업광고의 영향(2)	17%	· 향락문화와 쾌락주의 문화 만연, 향락·소비문화에 접근용이(7) · 사회의 가치관 혼란(5) · 지나친 경쟁주의(5) · 건전한 청소년 문화의 부재(3) · 권위주의와 신세대 문화의 갈등 (3)
총계	100 %	응답 수 72개	100 %	응답 수 142개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 1997.

청소년 가출 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부모의 동거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경험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연구²²⁾가 있었으며, 결손가정 출신의 가출청소년비율이 전체 가출청소년의 5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이정자, 1973), 이는 미국에서의 연구결과(Roberts, 1987)와 유사하다.

이러한 가정의 물리적 결손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가출 행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청소년이 그들의 부모를 지각하는 형태나 가정의 안정도가 가출 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²³⁾. 또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의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가출 청소년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면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출청소년의 10명 중 거의 7명 정도는 신체적 학대와 대등한 상당히 심각한 폭력의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⁴⁾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청소년 학대를 포함한 가출원인의 가족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김준호(1993),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 -오늘의 청소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pp.8-13.

23) 김준호(1993), 상계서, pp.8-13.

24)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가출청소년 상담정책 연구』, 2002청소년상담연구보고서, p.9.

첫째, 일반적으로 해체된 가족상황이 청소년가출의 기본 인자로 지적된다. 가출청소년의 부모들은 종종 별거상태에 있거나, 이혼상태, 법적 소송 중이며, 혹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음이 발견된다.

가출청소년과 학교무단결석자들, 비행범들 간의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 요보호성으로 판단된 가출청소년들이 심각한 가족위기에 있었고 명백한 부모의 거부로 인해 보다 많은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족들은 역할기대에서도 보다 혼란상태에 있는 듯이 보였다.

둘째, 가족의 구조가 문제 상태에 있다. 예를 들면 대가족 형태이거나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이 많다면 청소년문제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족 상황이나 나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낮아짐에서 비롯하였음을 지적한다. 즉 나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강요되면서 그에 대한 인정과 관심은 적기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가출청소년들은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혹은 원치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청소년간의 빈약한 의사소통이 일탈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부모들은 가출자녀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녀들과 협력할 것이며 제시각에 자녀가 집에 올 것이라고 믿는 반면, 가출자녀들은 자신들이 비가출 또래들보다 부모의 거부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넷째, 성적 및 신체적 학대가 일어날 수 있으며 혹은 경험한 적이 있다. Rothman(1992)은 가출아의 약 40%가 자신의 상황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신체적 학대를 이야기했고, 약 25%의 가출아들이 성적학대를 진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나철²⁵⁾은 외국의 경우 흔히 가출원인으로 의붓아버지의 성적 위협에 의한 탈출성 가출이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소수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들(권지영, 1991 ; 연진영, 1992 등)은 아동의 학대 및 청소년 학대의 주요한 실태들을 밝히고

25) 나철(1992), 『청소년 가출의 처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p.43

있으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적 학대의 제외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근래에 안창규(1995)는 비행관계 가정환경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학생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 척도를 표준화하여 부모의 과통제적 양육, 방임적 양육, 거부적 양육, 처벌적 양육, 애정관계적 양육, 비밀관적 양육, 가정의 안정성, 모의 양육기능, 부의 양육기능, 경제적 빈곤 등의 10개 가정환경변인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비행이나 가출의 가능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거부적 양육방법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 자녀간의 애정관계의 유대감 형성 내지는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학교 요인

학교교육이 전인적 인간의 육성이나 문화의 전달과 계승, 직업·지위선택의 기회제공, 사회화 기능이라는 그 본질적인 기능과는 멀어지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마치 규격화된 제품을 양산하는 공장처럼 되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 가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나 역기능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교육병리로써 자리잡게 하며 입시전쟁, 공부기피, 학교기피, 장기결석, 등교거부, 가출, 수업방해, 흡연·음주, 약물남용, 이성문제, 절도, 교내폭력, 폭력집단 가입, 노이로제 및 자살 등의 형태로 대표되는 병리현상의 폐해를 받게 하고 있다.²⁶⁾

이광호(1993)는 심지어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나 지나친 경쟁, 학벌지향적 배분과 가치지향성 등을 대표적인 '청소년의 제도적 유해환경'이라고까지 지적한 바 있다.

권이중(1993)은 학교교육 병리를 '병리적 교육'과 '교육적 병리'로 진단한다. 병리적 교육은 교육조건, 즉 원인으로서 병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적 병리를 만들어내는 다소 거시적인 병리현상들로서 시험체제의 병리, 교과서 중심 교육의 병리,

26) 안창규 외(1995). 전계서. p.71.

인간관계에서 병리, 시험불안 등으로 특정 지어진다. 또한 교육에 의해 발생하는 교육적 병리로는 공부기피, 등교거부, 퇴학, 비행 등을 낳는 것이다.

병리적 교육의 대명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입시준비 위주의 시험체제가 갖는 병리로 청소년의 가출이나 비행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준호(1993)는 공부압력을 경험할수록 지위비행, 가출, 성비행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식위주의 주지주의 교육이 정서교육, 의지력 배양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자아 통제력을 약화시켜 마침내 범죄나 비행관련 행동의 원인이 됨을 밝히고 있다. 시험체제의 병리는 결국 교육과정과 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위 중요과목에서 성취율이 저조한 학생은 이에 따르는 열등감에 직면하게 되고 마침내 보상적 행동으로서의 도피를 감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출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학교성적이 중간 이하이며,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존경심이 결여되고 의사소통의 통로가 단절된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잦은 무단결석이 일상화되어 학교에서 근신(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김향초, 2002).

4) 또래 요인

청소년기는 또래 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행동의 기준을 배우며, 자기 가치감을 확인하는 시기로 이제까지 부모에게만 의존하던 관심과 사랑을 친구를 통해 얻고 싶어한다. 특히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학교나 집안에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아이들은 청소년기에 자기를 인정해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와의 관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경우가 있다.

친구들을 통해 맛보는 소속감, 인정, 관심을 얻기 위해 부모를 등지고 과감히 집을 떠난다.

이처럼 청소년은 성장·발달해 감에 따라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의 준거집단으로서 또래집단을 채택한다. 특히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친구들과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며 친구집단은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고 정보교환의 통로로, 친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정으로 결속되는 집단이다. 이런 집단이 반사회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면 불량집단화하게 되며 청소년비행의 학습 및 반복에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가족 내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 혹은 가족이나 학교에 의해 부과된 사회적 표준에 대한 반발이 가출의 방출 요인이라고 할 때 또래 및 친구집단은 이를 수용하는 유인요인으로써의 성격을 가진다.

우리 사회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이며 이 시기에 친구집단의 영향 및 이의 중요성은 오늘날 가출 청소년의 한 특징인 줄줄이 가출, 집단 가출의 주요 역동을 보여준다²⁷⁾.

1992년 10월 28일 개설한 서울YMCA 청소년쉼터에는 1년 5개월 간 550명의 가출청소년이 다녀갔다. 가출상담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볼 때 가출의 주요 원인은 교우관계 41.8%, 가족관계 38.1%, 학교생활부적응 12.0%,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8.3%, 비행 7.8%,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7.9%, 약물이나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7%, 기타요인 4.2% 등으로 교우관계로 인한 가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서울YMCA, 1995).²⁸⁾

5) 지역사회 환경요인

현실의 지역사회의 모습은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삶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삶을 고갈시키는 터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지역사회의 모습은 퇴폐·향락적이며 소비지향적인 유해환경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소년들이

27) 안창규 외(1995), 전계서, p.73.

28)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전계서, p.11.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시설과 유해사범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번창일로에 있는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의 현주소이다.

지역사회가 가출청소년에 대한 원인이자 됨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기능의 약화 및 해체 현상에 기인한다. 가출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의 발생에 부모나 교사, 성인의 권위는 더 이상 통제기제로써 작용하지 못한다.

둘째, 지역사회는 가출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대안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 지역사회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개인적 욕구와 규범과 학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외압적이며 강압적인 통제가 없는 사회의 한 구석으로 도피할 수 있는 훌륭한 은닉처가 된다.

셋째, 지역사회는 금기 시 되던 성인문화에로의 참여 및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 가출 이후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곳은 고등학생인 경우 이른바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인 카페, 술집, 당구장, PC방, 노래방 등이며,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술집,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²⁹⁾

우리나라도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급격한 외국문물의 유입은 전통문화와 도덕성의 붕괴를 가속시켰고, 향락문화와 쾌락주의 만연, 향락·소비문화에의 접근용이, 사회의 가치관 혼란, 지나친 경쟁주의,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부재, 권위주의와 신세대 문화의 갈등 등은 청소년 가출을 부추기는 사회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9) 안창규 외(1995), 전계서, p.75.

Ⅲ. 제주도 청소년 가출의 실태

1. 청소년 가출의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가출청소년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으려 한다. 더불어 공식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발견하고 대응할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각 기관별로 가출청소년의 개념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각자의 기준에 의해 조사된 가출청소년의 규모를 살펴보고 전체 가출 청소년 규모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³⁰⁾

먼저 경찰청에 신고된 20세 미만의 가출자의 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교육부가 각 중·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 청소년의 수 역시 1990년대 중반에 이미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가출청소년의 규모

(1) 규모

현재로서는 전체 가출청소년의 규모 파악은 표본조사에 의한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울 YMCA(1996)가 서울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대상 청소년의 14.8%가 가출 경험을 보고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1)은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가출청소년의 경험률을 조사하였는데,

30)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가출청소년 상담정책 연구』, pp.1-2.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중인 일반 청소년 중 15.3%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 가출 경험

문항	구분	빈도	%
가출경험	전혀 없다.	1,630	82.7
	1번	141	7.2
	2번	65	3.3
	3-5번	60	3.0
	6-9번	13	0.7
	10번 이상	22	1.1
	무응답	41	2.1
계		1,972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국회교육위 보고서를 인용한 중앙일보의 2002년 9월16일자 보도에 의하며 조사 대상 초등학교 학생의 53.1%가 가출하고 싶은 충동을 경험하였고, 6.1%가 가출을 시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가출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10만 명을 훨씬 넘어설 것(약 15만 정도)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2)가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첫 가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5% 가량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가

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쉼터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 가출 경험이 있는 일반 학생에 비해 반복적으로 가출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첫 가출 시기가 빠를수록 반복적 가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중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생의 가출을 함께 다루어야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남녀 비율

가출청소년 남자와 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어떤 비율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통계는 없다. 다만 김성경(1997)은 여자 가출청소년이 남자 가출 청소년에 비해 더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학생 가출보다 여학생 가출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고 하고 있다.³¹⁾

 <표 3-2> 가출청소년의 남녀 비율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통계처리기관	년도	가출청소년의 남녀 비율	
		남	여
한국청소년선도회	1996	18	82
교육부	1996	44.6	55.4
충청북도교육청	1996	359	413
제주도경찰청	2001	150	231
	2002	150	214

자료 : 김성경, 1997.³²⁾

31)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pp65-96.

32)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전제서, p.12.

제시된 예를 표로 다시 추가 정리함.

가출소녀가 많아지면서 범죄에 희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퇴폐 유흥산업에 유입되어 성적착취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가출 소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 가출인 발생 현황

요보호 청소년은 미아, 가출청소년 등 사회보호를 요하는 청소년을 말하는데, 경찰은 이런 소년을 발견한 경우 소년경찰직무규칙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의거 보호하면서 24시간 이내에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0년도 가출인 발생 처리 현황을 보면 총 4,357건이 발생하여 3,798명은 보호자가 인계하고, 174명은 보호시설 인계, 나머지 385명은 미아·가출인 영상시스템에 사진 입력, 전국 수배·조치하였다.

가출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20세 미만의 청소년 18,442명이 발생하였다.

2001년에 발생한 가출인은 전년에 비해 3.8% 증가한 61,319명으로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0.9% 감소한 반면 20세 이상은 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3-3> 가출인 발생 및 처리상황

구 분 (년도)	9-20세 미만 (명)
1995	16,013
1996	19,320
1997	19,835
1998	15,316
1999	17,894
2000	18,442
2001	18,276

자료 : 경찰청³³⁾

33)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1, p.510.
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2002, p.514

2. 제주도 청소년 가출의 실태

1) 제주도 청소년 가출실태 보도 내용 : 2000년 ~2002년

제주도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실태 및 원인에 대한 2000년~2002년 제주도내 지방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 6월 18일자 제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가출 충동을 느꼈을 때 혼자 해결하거나 친구와 의논할 뿐 부모, 교사, 상담기관 등은 전혀 찾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출청소년 쉼터(시설장 허순임)가 17일 개원 3주년을 맞아 센터 강당에서 마련한 ‘빈곤 아동의 미래 : 그 도전과 기회는?’ 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은지 교사(제일중)가 발표한 가출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도내 10대 114명, 20대 49명, 30~40대 이상 15명 등 모두 178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출 충동을 느꼈을 때 의논하는 상대에 대해 ‘친구’라고 응답한 사람은 59.1%(68명),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3.9%(39명)를 차지한 반면 교사, 부모, 상담기관이라는 응답은 전무했다.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35.7%)보다 여성(61.7%)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출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는 상황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 (35.7%), ‘부모의 불화’ (19.1%), ‘공부에 대한 부담감’ (12.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30.9%(55명)와 30.3%(54명)가 각각 청소년 가출이 부모와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회 환경’이라는 응답도 22.5%(40명)를 차지했다.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는 ‘화목한 가정’ (43.3%), ‘청소년 공간 확대’ (24.2%), ‘청소년 스스로 노력’ (12.4%) 순으로 응답했다.

<2002년 5월 26일 제민일보> 보도자료

가출청소년이 매년 400명을 웃돌고 있다. 특히 이들 가출청소년은 PC방 등을 전전하며 범죄에 쉽게 발을 들여놓은 뒤 범죄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신고된 가출청소년은 26일 현재 128명에 이르고 있다. 신고되지 않은 인원까지 합치면 실제론 200명 가까이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2000년에 424명이던 가출청소년은 2001년에는 440명으로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가출청소년이 매년 늘면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지만 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사회 여건은 너무나 열악하다.

실제 지난 23일 주차 차량을 훔치려다 경찰에 검거된 이모군(16·주거부정) 등 2명은 가출 뒤 PC방 등을 전전하다 알게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이날 붙잡힌 정모군(13) 역시 2개월 전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제주시내 모 문방구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군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어서 귀가 조치됐지만 의지할 데라곤 할머니밖에 없어 제대로 교화는 어려운 실정이다.

경찰은 가출청소년이 매해 늘자 다음달부터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 가출청소년들을 선도·귀가시키기로 했다.

<2002년 8월 29일 제주일보> 기사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문제를 위한 종합적 접근과 비전 제시’를 주제로 한 전국가출청소년쉼터 실무자 포럼이 2002년 8월 29일 오후 2시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허순임 제주상담센터 소장은 2002년 5월 도내 청소년과 일반인 159명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가출 청소년 실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허 소장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소년 58.5%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출 원인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 19.5%, 부모의 무관심 6.3%, 부모의 불화 13.8% 등으로 39.6%가 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200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청소년(94명) 6% 정도만이 친부모와 살고 있었다” 며 “대부분 청소년 가출은 가족 위기나 해체로 인한 탈출형 가출이 많다” 고 지적했다.

<2002년 8월 29일 목요일 제민일보 세미나개최> 자료에 의하면

(사)제주상담센터(이사장 양정국)가 주최한 2002 민간단체지원사업 포럼이 8월 29일 오후 2시 우당도서관 맞은 편에 위치한 제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접근과 비전 제시’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허순임 제주상담센터 소장은 “제주도의 경우 요보호 아동·청소년 발생 건수 중 비행, 가출, 비행아동 발생수가 서울·경기·부산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나 욕구 조사 등의 연구는 물론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없었다” 고 전제한 뒤 “가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가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허 소장은 “가출청소년들은 단순히 ‘문제아’ 로 낙인찍고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사회간접비용은 엄청나다” 면서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단순히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의 문제가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복지서비스의 향상, 가출지원 거리상담소 설치 등의 방법을 동원해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 라고 주장했다.

<2002년 8월 30일 제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상담센터 허순임 소장은 “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 조기 발견’ 에서 전문가 상담, 교육, 가정의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의 단계별 업

무가 통합시스템으로 처리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 기능의 향상 △가출 조기 발견을 위한 ‘가출지원 거리상담소’의 설치 △전국 연계망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및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정신건강센터 광영숙 소장은 ‘가출원인과 대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은 보호 청소년의 문제의 특징과 정도에 따라 교육·치료·재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곽 소장은 또 “가출 시설에 대한 순회교육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사회적 기술 훈련 및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2002년 10월 23일자 한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들어 이혼율 급증으로 인한 가정붕괴가 청소년 가출 등으로 직결되며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제주통계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도내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비율은 46.4%. 두 쌍이 결혼하는 동안 한 쌍 꼴로 ‘삶의 동반자가 되겠다’던 결혼서약을 뒤로하고 남남으로 갈라섰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91년 이혼율 12.2%보다 34.2%포인트 급증한 수준이다. 또 전국평균 이혼율(91년 11.8%, 2001년 42.2%)과 견줄 때도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다.

이혼 증가는 부부의 문제를 떠나 이로 파생되는 가족 해체, 청소년 가출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주상담센터가 최근 2001년 한 해 동안 부설기관인 제주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67명의 가족형태를 분석한 결과 친부모와 사는 비율은 9.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91.0%는 편부, 편모, 양부, 양모나 조부모 밑에서 생활하는 결손가정 청소년들이었다. 2002년 6월말 현재 집계에서도 친부모와 사는 가출 청소년은 3.7%에 그쳤다.

<2002년 11월 18일 한라일보> 기사에 의하면

도내 일부 10대 가출 소녀들이 다른 지방 티켓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이달 초 가출한 딸을 찾아 달라는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1주일만에 경기도 용인지역 한 티켓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출소녀 A양(18)의 소재를 파악,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은 친구와 함께 생활비와 용돈마련을 위해 경기도 용인 지역의 티켓다방에 취직,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양은 한 달 1백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직했으나 업주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 자유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양이 일했던 티켓다방에는 제주출신 10대 소녀 외에도 다른 지방 출신 가출소녀(17)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티켓 비용(1만5천~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외출을 허용하고 인근 다른 티켓다방에서는 윤락까지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티켓다방 업주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먹’ 들을 동원하고 이들이 여종업원들을 감시함과 동시에 다방으로 차 배달주문이 들어오면 요구장소로 종업원들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2년 11월 27일 수요일 제민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내 청소년 가출이 2001년보다 늘고 있어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에 따르면 경찰에 신고된 제주도내 가출 청소년(9세~19세)은 2002년 9월까지 275명으로 2001년 같은 기간 267명보다 3% 증가했다. 이 가운데 14~19세 청소년이 23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가출 청소년 가운데는 여자 가출자가 165명으로 남자 가출 110명에 보다 훨씬 많았다.

<2002년 11월 29일 한라일보> 보도내용에 따르면

제주도내에서 가출하는 청소년이 월평균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002년 11월 29일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이 마련한 제6회 청소년 현안문제 세미나에서 강영봉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원이 발표한 ‘청소년 가출,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내용의 주제논문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2년 9월말까지 경찰에 신고된 도내 가출청소년은 남자 1백10명, 여자 1백65명 등 총 2백75명으로 월평균 30명이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1년 같은 기간 2백67명(남 110명, 여 157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이며, 더욱이 여학생 가출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또 연령별로 보면 ‘14~19세’는 2백36명으로 ‘9~13세’ 39명에 비해 훨씬 많지만 2001년 같은 기간(14~19세 244명, 9~13세 23명)과 비교해보면 저연령층의 청소년 가출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새학년 초와 여름방학전후에 가출이 가장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소년 가출건수는 실제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영봉 상담원은 청소년들의 이 같은 가출행동은 집을 떠나고자 하는 ‘개인적 요인’ 과 이들을 집에서 밀어내는 ‘학교와 가정, 사회환경적 요인’ 들이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빚어지고 있다고 풀이했다.

2) 제주도 가출 청소년의 발생 현황

청소년 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어느 나라도 실제 청소년 가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나라도 없으며 대부분 추정치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경찰청 또는 학교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 그 실태와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들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집을 떠나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의 숫자는 훨씬 많다는 것이다. 경찰에 신고된 도내 가출 청소년 현황은 2001년도/2002년도 총 가출수 381명/364명이며 남학생인

경우 150명/150명, 여학생은 231명/214명으로 여학생들이 훨씬 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찰에 신고된 건수이며, 실제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전국 청소년 학생비율로 볼 때 가출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제주도의 이혼율이 전국 1위라는 통계하고도 무관하지 않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가출수가 많다는 것은 여권신장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모델링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이다.³⁴⁾



34)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2002), 『청소년현안문제토론회』, p123.

< 표 3-4 > 2001년도 제주도 청소년 가출 실태

구 분	계			연 령 별				동 기 별										
				9-13		14-19		진 학	남녀 관계	가정 불화	가정 엄격	별 책	구 직	교우 관계	정신 질환	기 타		
	남	여	남	여														
1월	16	8	8			8	8											16
2월	42	21	21	2		19	21	1	1									40
3월	72	33	39	3	3	30	36	1	1	2					2			66
4월	96	42	54	5	3	37	51	1	1	2					2			90
5월	121	55	66	6	5	49	61	1	1	2		1			5			111
6월	150	66	84	7	6	59	78	1	1	2		1			7			138
7월	192	78	114	8	6	70	108	1	1	2		1			9			178
8월	232	96	136	13	7	83	129	1	1	3	1	1			10			215
9월	267	110	157	14	9	96	148	1	1	4	1	2			10			248
10월	314	128	186	16	17	112	169	1	1	4	1	2			10			294
11월	344	143	201	20	18	123	183	1	1	4	1	2	1		10			324
12월	381	150	231	22	22	128	209	1	1	4	1	2	1		10			361

자료 : 제주도지방경찰청(2002)

< 표 3-5 > 2002년도 제주도 청소년 가출 실태

구 분	계			연 령 별				동 기 별							
				9-13		14-19		진 학	남녀 관계	가정 불화	별 책	교우 관계	정신 질환	기타	
	남	여	남	여											
1월	29	12	17	3		9	17								29
2월	53	17	36	3		14	36								53
3월	87	32	55	4	2	28	53					1			86
4월	128	45	83	10	4	35	79					1			127
5월	165	59	106	13	8	46	98					2			163
6월	183	70	113	15	8	55	105					2			181
7월	215	88	127	17	11	71	116					2			213
8월	249	102	147	19	15	83	132					2			247
9월	275	110	165	20	19	90	146		1	1		3			270
10월	316	127	189	22	20	105	169		1	1		4			310
11월	341	137	204	25	24	112	180		1	1		4			335
12월	364	150	214	28	26	122	188		1	1		4			358

자료 : 제주도지방경찰청(2003)

3) 제주도 청소년 가출의 원인·실태

< 표 3-6 > 2002년도 월별 추가 가출학생 수

월 별	계	%	남	%	여	%
1월	29	8.0	12	8.0	17	8.0
2월	24	6.6	5	3.3	19	8.9
3월	34	9.3	15	10.0	19	8.9
4월	41	11.3	13	8.7	28	13.1
5월	37	10.2	14	9.3	23	10.7
6월	18	4.9	11	7.4	7	3.3
7월	32	8.8	18	12.0	14	6.5
8월	34	9.3	14	9.3	20	9.3
9월	26	7.1	8	5.3	18	8.4
10월	41	11.3	17	11.3	24	11.2
11월	25	6.9	10	6.7	15	7.0
12월	23	6.3	13	8.7	10	4.7
계	364	100	150	100	214	100

자료 : 제주도지방경찰청(2003)³⁵⁾

<표 3-6>에서 보듯이 2002년도 제주지역에서는 4월에서 5월 사이, 그리고 10

35) 제주도지방경찰청(2003), '2002년도 제주도 청소년 가출 실태'를 월별로 다시 재정리

월에 가출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 학기에 접어들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거나 또는 날씨와도 무관하지 않아 학생들이 돌아다니기가 좋은 계절이고 길거리 어디서나 취침이 가능하기 때문이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통계상으로는 방학 중(1월, 8월) 가출학생의 비율이 다른 달에 비해 적게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방학중 가출을 경험하였다가 다시 가정과 학교 생활에 복귀를 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가출하는 경우가 교육 현장에서 더러 있어서 그 시기가 4~5월, 10월경이 아닌 가하는 추측을 해본다.

<표 3-4 >, <표 3-5 >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청소년 가출 현황을 재정리하여 비교해보면, 가출 청소년의 수는 <표 3-7>과 같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여학생의 가출 수가 남학생의 경우보다 많았지만, 오히려 2002년도에는 가출학생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여학생의 가출율도 2001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오히려 낮은 연령층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가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국적인 가출청소년의 추세가 저연령화되고 있음이 제주지역도 예외지역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에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 가출은 오히려 감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7 > 가출청소년의 남녀별 현황

구 분	계			연 령 별			
				9-13		14-19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1년도	381	150	231	22	22	128	209
2002년도	364	150	214	28	26	122	188

< 표 3-8 >에서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를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정불화나 교우관계로 인한 요인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집계한 자료로는 가출에 대한 정확한 동기 또는 복합적인 요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이 부분에 계속적이고 심층적인 조사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표 3-8 > 가출 청소년의 가출 동기

구 분	계			동 기 별								
				진 학	남녀 관계	가정 불화	가정 엄격	벌 책	구 직	교우 관계	정신 질환	기 타
	계	남	여									
2001년도	381	150	231	1	1	4	1	2	1	10		361
2002년도	364	150	214		1	1		4				

허순임 제주상담센터 소장이 2002년 5월 도내 청소년과 일반인 159명을 대상으

로 한 길거리 설문 조사 결과 “ 제주지역 청소년 58.5%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가출 원인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 19.5%, 부모의 무관심 6.3%, 부모의 불화 13.8% 등으로 39.6%가 부모와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고 ‘제주 가출 청소년 실태’ 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주장하였다.³⁶⁾ 이처럼 제주지역의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도 가정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제주일보』, 2002년 8월 29일

IV.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

오늘날 청소년 가출은 부모의 통제에서의 이탈, 가정의 울타리에서의 탈출, 공부 지옥에서의 해방, 기존의 도덕 관념에서의 벗어남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려는 강한 열망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귀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외에는 가출청소년이 가능한 한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시보호, 장기보호와 위기개입 서비스, 상담지원, 위탁교육, 대안교육 체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³⁷⁾

1. 정책 및 제도적 측면

1) 가출청소년 보호법의 제도화 및 청소년 보호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교육, 문화,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많은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그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기존의 단편적인 선도보다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³⁸⁾

우선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찾아 선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화부족으로 자녀의 고민이나 친구관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일단 가출해버리면 손을 쓸 수가

37) 강영봉(2002), 『청소년 가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 청소년현안문제토론1집, pp.120-133

38) 홍연숙(2002), 『가출청소년 복지서비스 현황과 대안』, 제주도 통권105호, pp.246-251.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대한 배신감 등의 감정이 개입되곤 한다. 거기다 학교에 연락이 되었을 경우 자녀가 징계를 당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못한 채 길거리를 무작정 찾아 헤메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신고 체계가 확립되어야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빨리 이들을 발견하여 귀가시킬 수 있다.

다행히 현재, 가출로 실종된 자녀들의 부모들로 구성된 실종자 가족 협의회가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속해 있는 민주시민운동연합에서는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실종자가 양산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시민운동으로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청소년선도회³⁹⁾ 등 일부 사회단체에서도 가출 청소년 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 보호 기관 간의 지역적, 전국적 연계망을 구축하여, 외부협력 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일련의 상담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실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문화관광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효과적으로 가출 청소년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청소년 관련법 가운데서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법으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등이 있으나 이들 법에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이 미약한 편이다. 2002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 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⁴⁰⁾ 이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는 실정이고, 또 아동복지법의 경우

39) 대표 : 박부일(<http://www.youthguide.or.kr>), 1981년 3월 6일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선도 활동으로 예방하고 자아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해 사회의 질서유지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40) 第49條 (青少年的 非行豫防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的 非行豫防 및 非行 青少年에 대한 善導와 非行青少年이 修練活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하여 가출 청소년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18세 미만의 가출 아동 보호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재정적·조직적 제도가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조기 발견, 위기 개입, 사후처리개입의 단계별 수요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가출 청소년 보호문제를 특별히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서 더 나아가 강제조항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울러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을 유혹하거나 고용한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현 헌법상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유흥업소나 그 외 기타 상점에서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성년자 고용업소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함께 설령 청소년 자신이 유흥업소를 선택하여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가출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 주어지는 법적 제재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유흥업소 불법 취업, 청소년 인신매매 등의 근절을 촉구하는 가출예방 캠페인 및 가출 청소년 집으로 돌려보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미성년자를 호객하거나 청소년이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해 환경 관련 업소 및 폭력을 조장하는 대중매체 등의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국치안에 편중되어 있는 경찰력을 배정하여 가출 청소년을 찾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또한 가출청소년 찾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단체들도 경찰과 합동으로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거나 무허가 유해업소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을 구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끔 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으로 육지와 단절된 곳이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신상과 악만 빨리 그리고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외부로 나가는 항만과 공항을 차단한 후 경찰과 학부모 그리고 가출 청소년 선도위원 등이 연계가 되어 우범지역 및 유해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케 함으로써 가출 청소년들이 비행에 덜 빠져들고

빨리 귀가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건전한 취업 통로의 마련

노동법에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취업할 경우 부모동의서나 보증인 등의 서류가 요구되고 장시간의 노동이 금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고용했을 경우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유흥업소에서는 소녀들의 취업을 권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들은 집에서 나올 경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가출이 장기화되어 귀가가 늦어지고 집에 연락조차 취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가출 청소년이 가정에서 탈출하여 가출을 시도하였을 때는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가기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자립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뿐더러 부모가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여 다시 가정으로 복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취업을 할 경우, 청소년의 노동력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몰지각한 업주나 조직에 걸려들 위험이 크며 신분을 밝히기 꺼려하는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가출청소년이 필연적으로 접하게 될 직업 문화를 보다 건전하고 건강하게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흥업소의接客부를 포함한 종사자, 신문가판업소, 기타 영세 가내업소에 고용·취업된 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산 입력 조치가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그 외에도 정부인가를 받은 공공직업소개소를 가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설치하여 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연소노동자의 지위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구체화, 현실화하고 그 시행 규정을 명확히 집행함으로써 많은 연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만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된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해 건강한 직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업소개를 양성화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임금 절감을 위해 연소 노동자를 끊임없이 고용하는 유흥업소 등이 청소년을 끌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3) 위기 전화의 개설

가출 청소년들 모두가 가출 시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실제적인 도움 즉, 타인과 간접적인 연결만으로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는다면 또는 가출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비공식적인 체계와 연결시켜주는 등의 도움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전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출 청소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위기 전화를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위기전화를 설치하고 현재의 182와의 연계가 바람직하다.⁴¹⁾

최근, 막상 집을 뛰쳐나왔어도 갈 데 없고 막막하거나,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의 전화가 새로 생겼다. 1588-0924로 전화를 걸어보면 자신이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상담실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곳 없는 청소년에게겐 쉼터나 일자리 등 원하는 시설까지 안내 받을 수 있다.

1588-0924는 문화관광부가 전국 청소년 상담실을 하나로 연결한 전화네트워크이다. 어디에서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서울시내 13곳 상담실 중 가장 가까운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상담실로 전화가 연결된다. 집으로 곧장 돌아가기 어려운 형편의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쉼터나 직업전문학교, 청소년 오지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어주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전화를 걸면 쉼터와 상담실 가운데

41) 손인영(1999),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9-71

자신이 선택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라고 한다.

또 부모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국청소년선도회의 '가출청소년 찾아주기 본부'에 의뢰해 가출 자녀를 찾아주도록 돕기도 한다.

현재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112곳이 연결돼 있다. 0924는 청소년기본법에 만9~24세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따운 번호이다. 다만 이용시간이 오전 9시~오후 9시로 제한돼 있어 아쉽다.⁴²⁾

이러한 위기전화를 통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출의 악화를 막고 추후에 필요한 서비스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겠다.

2. 가출청소년 서비스 체계 및 지지 체계망의 확립

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주로 강제적 접근이 우세하였으며 주어지는 서비스도 사회 통제적 서비스인 귀가조치가 우선함으로써 적절한 문제진단과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았다.

먼저 가출 청소년을 돕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의 진단에는 청소년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진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고, 이 결과에 의하여 귀가 조치 및 치료적인 성격의 상담이나 일시·장기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리 현상으로 인해 가출한 청소년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가출 청소년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 더군다나 결손가정, 재구성된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과 학대, 구타 등을 일삼는 부모와 사는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장애를 가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기 때문에 가출 문제 또한 일방적인 귀가 조치

42) http://kdaq.empas.com/dbdic/db_view.jsp?ps=src&num=21020

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족 재통합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위기 속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위기개입, 음식, 거처와 의료조치, 그리고 적절한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쉼터와 같은 치료 보호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은 39개소의 크고 작은 부랑인 보호시설에서 수용·보호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비행 청소년들 또한 정확한 구분도 없이 같이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 가출 청소년들의 나이나 처해 있는 상황을 구분하지 않는 단순한 수용격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비행을 재학습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기까지 하는 역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가출 청소년들을 비행청소년들과 구분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출 청소년 대상의 사회보호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가출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서비스의 영역 및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교류를 통해 서로 적절히 의뢰를 해주는 사회지지 체계망의 형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지망을 통해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만성 가출자를 줄이고 가출청소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지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 및 실무자 실태조사, 의뢰 체계 형성을 위한 세미나, 학교 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속에서 연계망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나눔의 집과 청소년 쉼터 등 가출 청소년을 돕는 기관들을 연결하는 지지체계망의 확립과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외에도 가출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단순가출인 경우 일시보호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기관이 가출 청소년의 접

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되어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막고 일시보호와 상담을 통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만성가출인 경우는 쉼터보다는 문제원인과 가출청소년의 욕구 등을 고려한 장기 보호기관, 가족치료 전문상담 기관, 청소년 심리치료센터, 직업 훈련원, 집단가정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에 덧붙여 학대 및 방임 등의 문제가정에서 탈출한 청소년의 경우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와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일시, 단기, 중기, 장기 등의 보호시설과 이용시설로서의 상담 및 교육, 문화 활동 공간 등이 다양하게 서로 배치되고, 역할 등이 정착될 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가출 예방책으로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아동 상담소, 부녀아동상담소, 청소년복지기관, 가정복지기관, 지역사회복지기관, 기타 여러 민간단체의 자원을 지역단위별로 조직하여 가출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복지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를 구성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주도 하에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다각적인 프로그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⁴³⁾

1) 쉼터의 활성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들이 가출해서 당장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 2의 비행과 범죄로 연결되기가 쉽다. 돌아갈 가정이 없는 또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가정을 가진 가출 청소년들에게는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가출청소년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쉼터는 가족에 대해서는 가출 청소년의 대변인 혹은 옹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양자의 중개인일 가능성이 높다. 때로는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와 협력해야 하고, 부모가 가출을 일으키는 일차적인 책임(학대)이 있을 때의 법적 대응도 검토되어야 한다.

서비스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쉼터가 요청되고 있다. 즉 일시 보호 쉼터뿐만

43) 손인영(1999), 전제서, pp63-64

아니라 중·장기 보호시설, 단순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상습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학대받은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등 다양한 청소년 쉼터가 마련되어야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나눔의 집이나 청소년 쉼터 등의 가출 청소년을 돕는 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런 활동이 각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단 한 곳에 불과하여⁴⁴⁾ 최소 시·군별로 한 군데 이상씩은 더 마련되어야 하겠다.

시설 또한 단순 보호를 위한 숙박 위주의 시설이 아닌, 오락 및 여가활동 기능을 대폭 확대한 문화공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집단 가정 형태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업 훈련을 도와주는 기관도 요청되며, 도시에서 일시 탈출한 청소년을 위해 농촌 쉼터도 마련할 수 있으며, 약물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을 치료하고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설립도 계속 모색하고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쉼터가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가출 유형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재가출의 심각성 인식에 따른 구체적인 프로그램
- 가출의 주원인인 가정해체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 청소년의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다.

2) 가출 청소년을 위한 거리활동봉사자의 활동

미국의 경우 가출 청소년들이 기관의 도움을 청하러 오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인식하여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서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으로, 담당자들이 직

44) 제주가출청소년쉼터(T064-744-3276, www.chejuounsel.or.kr), 제주시 연동 273-35번지 제연빌딩 6층

집 길거리로 나가서 배회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먼저 찾아내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출 청소년지도에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YMCA 청소년 쉼터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길거리로 나서서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은 전무하다.

따라서 쉼터와 가출 청소년들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자원봉사자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직접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특히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촉하여 선도하고, 직접 쉼터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하나인 ‘지킴이’와 같은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다.

3) 가출 청소년 위기 개입 서비스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유형이 다양하고 그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상담 및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은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개입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요구한다.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즉 상담지원으로는 위기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또래상담), 가족상담, 의뢰 및 지원서비스(쉼터, 복지기관, 취업알선, 병원 등) 그리고 사후관리(추후지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⁴⁵⁾

가. 위기 상담

위기 상담은 예기치 않던 환경적 자극이나 그 밖의 이유로 위기감을 느끼는 청소년들에게는 즉각적인 위기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위기상담을 통해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줘

45) 강영봉(2002), 전개서, pp127-133

야 한다. 그러나 돌아갈 가정이나 집이 없다면 혹은 있더라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학대나 폭력, 약물, 자살 등의 위험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연계망(쉼터, 경찰, 병원) 등을 통해 적절한 법적 보호조치나 기관연결이 필요하다.

나. 개인(개별)상담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인 상담에서는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재가출에 대한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때 상담자는 청소년의 가출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 가출 청소년들은 흔히 어른들에 대해 불신감이 깊기 때문에 상담자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는 청소년이 느끼는 불안, 좌절, 분노, 죄책감 등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각각의 구체적 문제상황과 관련된 대처 기술이나 적응능력을 개발해줌으로써 자신이 처한 문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다. 집단 상담

집단상담의 장점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됨으로써 집단 구성원들간의 지지와 격려, 공감의 교류가 일어난다는데 있다. 이러한 집단의 경험은 가출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집단 상담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또래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을 깨닫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또래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담 방법이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집단상담은 분노조절 및 자기조절 능력, 의사소통 및 자기 주장기술, 대처기술,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주제로 도와줄 수 있으며, 문제에 따라 자아존중감 증진, 사회성 기술, 스트레스 극복 등 다양하게 집단 구성으로 실시하게 된다.

라. 가족 상담

가출은 가출자 및 가족 모두의 고통을 당하는 가족문제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출 청소년들의 가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상담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상담은 가출과 관련된 가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치료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이 복귀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가족 상담은 청소년 가출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재가출의 예방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상담방법이다. 가출 청소년과 관련된 가족상담은 가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가족 간의 의사 소통문제, 부모-자녀간의 갈등 해결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법이나 자녀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도 필요하다.

마. 지역 사회 서비스

단순한 상담이나 일시적 보호를 넘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을 적절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지역서비스가 필요하다. 예컨대 가정에서 학대나 폭력의 위협에 놓여있는 가출 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보호기관으로 의뢰하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정신치료가 가능한 시설 및 병원으로 의뢰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학교나 기타 지역 사회내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가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가출 청소년이 다시 길거리로 나가는 만성가출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바. 사후 관리(추후 지도)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은 대부분 귀가 조치하고 아동상담소에 인계된 경우라도 부모와 보호자가 있는 경우 대개 귀가 조치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출 후 사후지도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 등 적절한 개입을 통하여 가출 청소년을 귀가시킨다 하더라도 가출의 원인을 제공한 가정이나 학교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다시 재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은 크기 때문이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 가출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가출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에 복귀를 시킨다든지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가 없다면 강제 귀가시 언제라도 재가출이 가능하고 현재 이러한 재가출에 대한 예방 대책과 예방서비스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므로 가출의 악순환은 지속되리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후지도에 대한 실시가 부재한 만큼 효과적인 지도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의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3. 가정 · 학교 · 사회에서의 대책

1) 가정에서의 대책

모든 청소년문제나 청소년 가출의 일차적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가정에 있고, 그 책임도 가정에 있다. 현대화 과정에서 핵가족화 현상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 사이의 응집력이 약화되면서 가족 간의 기본적인 인간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이 물질적 풍요는 누리나 마음은 가난하고, 가족은 있으나 대화할 사람이 없고, 부모가 있어도 열쇠아이가 늘어나면서 가정의 끈끈한 정

이나 마음의 편안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 청소년과 기성세대 사이는 세대 차에서 오는 갈등 현상의 폭이 너무 넓어서 서로를 경계하며 무작정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책은 가족구성원 간에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인간교육, 도덕성회복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가 가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가출 후 귀가했을 때 재가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역기능적 관계가 가출의 원인이 되었을 때는 가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1) 가정복지 사업의 강화

부모 사망, 이혼, 별거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가정과 가정불화, 방임, 학대 등의 기능적 결손가정에서 가출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의 구조적 요인보다는 기능적 요인임을 감안해 볼 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강화하며 부모의 양육능력을 보호·강화하고, 일시적 대리 기능을 하여주는 가정복지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특히 빈곤 가정의 경우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궁핍, 생활환경문제,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문제 등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제 불만요인들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하기 쉽다. 저소득계층의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물질적·심리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나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조직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조할 수 있어야 하겠다.⁴⁶⁾

46) 이옥란 외(1998), 『부산지역 여성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실, pp.109-110.

(2)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화

문제아 뒤에는 문제부모가 있다는 영원한 명제처럼 가출의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기능이요, 부모의 양육태도의 문제이다. 가출의 가장 높은 요인이 가정환경요인 중 부모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비정상적인 가정형태인 빈곤가정, 결손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이 문제가 되어왔으나 근래에는 일반 정상가정에서의 과잉보호, 무관심 등의 부적절한 양육방법이 가출에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시간을 두고 정성을 다하면 쉽게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부모들은 좀처럼 쉽지 않다.

부모 중에는 자녀를 지도·양육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모도 있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청소년기 욕구를 잘 이해하고 돕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PET(Parents Effectiveness Training)⁴⁷⁾, APT(Active Parenting Today)⁴⁸⁾ 등의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통해서 가출 학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부모와의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여 가정에서의 일차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가정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⁴⁹⁾

특히 상당수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소득계층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자녀교육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종전의 단편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인 행동변화를 꾀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실시되어야겠으며 또한 그

47) 우리나라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는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제일 많이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토마스 고든박사가 창안하였으며, 전 세계 29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이다.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자녀를 수용·신뢰하게 되고, 독재적 태도 행동이 감소되며 전체적인 부모의 태도 및 자녀 양육 행동이 긍정적으로 향상된다. 즉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따뜻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프로그램이다.

48)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프로그램, 미국의 아동심리학자 마이클 팜킨에 의해 창안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부모용 지침서, 여러 가지 활동들, 비디오, 토론, 훈련과 피드백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동으로써 아주 효과적인 교수법을 사용한다.

49) 홍연숙(2002), 전계서, p.249.

방식도 강의식보다는 TV, 라디오 매체나 가정통신문의 활용, 직장단위의 교육,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교육, 문화캠프 등 이용자의 욕구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그 이용의 근접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교육의 대상도 아버지 교육까지 확대되어야 하겠으며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자녀지도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안내에서부터 직접적인 상담제공까지 역동적으로 행해져야 하겠다. 또한 가출 청소년을 둔 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도집단을 형성케 하여 상호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⁵⁰⁾

(3) 가정일시 위탁제도의 도입

청소년 가출이 가족원의 갈등 혹은 학대와 같은 가족 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 청소년을 귀가시키기 전 일정 기간 가정에 위탁해서 생활하게 하고, 상담기관의 통원치료와 상담소 방문치료를 겸하여 실시하며, 필요하다면 가족치료까지 실시한 후 귀가시키는 방법이다. 물론 청소년 쉼터가 있기는 하나 가출 청소년의 수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므로 가정일시 위탁 제도를 도입해 함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부모-자녀 대화 방법⁵¹⁾

가출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들과 정기적인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다. 대화할 시간과 기회가 부족하고 대화의 소재가 빈곤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릇된 대화 방법으로 인해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대화는 가족원간의 친밀도를 강화시켜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만 그릇된 대화방법은 가족원간의 골을 더 깊게 하고 그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된다. 따

50) 이옥란 외(1998), 전계서, p.110.

51) 강영봉(2002), 전계서, pp.130-132

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들의 대화 방법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자녀와 대화 할 때는 말하기보다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 TV 등을 보면서 건성으로 듣는 자세는 절대 삼간다.
- ② 자녀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는 함께 걱정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대한다.
- ③ 자녀와 갈등이 생길 경우 자신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함께 공감하도록 노력한다.
- ④ 일방적인 명령 대신 설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칭찬을 많이 한다.
- ⑥ 자녀의 친구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한다.
- ⑦ 잘못을 했을 때는 엄하게 꾸짖되 자녀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 ⑧ 자녀를 훈육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말한다.
- ⑨ 하지 말라는 말보다는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사용한다.
- ⑩ 대화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부모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5) 자녀의 가출이 의심될 때의 예방전략

- ① 갈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변화들을 눈여겨본다.

예를 들면

- 피곤해 하면서 잠을 많이 자거나 잠을 못 이루는 등 수면습관의 변화
-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거나 급격하게 기분이 변하는 등 정서적인 변화
- 혼자 지내려 하거나 가족 내 규칙을 어기는 일이 많아지는 등 가족 관계의 변화
- 성적이 떨어지거나 교칙을 자주 위반하는 등 학교생활의 변화
- 기존에 사귀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며, 새로운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하려

하지 않는 등 친구관계의 변화

- ② 갈등의 조짐이 보이면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그 행동의 결과와 부모가 걱정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되 설교하지 않는다.
- ③ 자녀의 방을 확인해 본다.
 - 가출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여러 가지 물건을 싸놓았거나 가출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

(6) 가출했던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대응 방법

- ① 안전하게 귀가한 것에 대해 관심을 보여준다.
 - 자녀가 가출한 경우 부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하고 불안하며 절망스러울 것이다. 보통 자녀가 귀가하게 되면 그 동안의 불안과 초조와 분노로 변하여 화를 내고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가출 후 돌아온 자녀를 수용하는 것이다.
- ② 가출기간이 길어졌다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
 - 가출기간 동안 불규칙한 식사 및 불결한 위생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졌거나 성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건강 검진을 받게 한다.
- ③ 가출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한다.
 -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갈등은 더 심각한 가출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출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다.
- ④ 인간적인 이해와 배려로 자녀를 대한다.
 - 부모와 자녀간의 단절된 대화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조성하여 자녀가 항상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번 가출했다고 해서 자녀의 눈치만 보거나 아예 포기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

람직하지 않다. 가족들의 지지만이 재가출을 방지할 수 있다.

(7) 재 가출 예방법⁵²⁾

한 번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또다시 가출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는 가출에서 돌아온 다음의 재적응 과정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출을 해 본 청소년이 다시 가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먼저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족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는 다시 가출하려고 할 것이다. 때로는 잘 되지 않겠지만 부모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면 재가출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새로운 생활을 하기전의 자녀 심정을 이해한다. 가출했던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으며,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회의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녀의 심정을 부모가 이해하고 자녀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힘을 북돋아 준다. 가족이나 부모의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 시간에 변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서로 노력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부모는 너의 편이니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의논하자고 말하도록 한다.

셋째, 자녀가 마음 붙일 수 있는 가정환경을 조성한다. 부모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하며, 부모는 자녀를 믿고 지켜보는 인내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한다. 또 새로운 가족관계를 위한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아이와 함께 의논해 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한다.

넷째,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 가출했던 친구들을 사귀면서

52)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집 나가는 아이들』, 청소년가출·재가출 예방 부모용지침서, pp.48-52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을 비교하여 그 친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가출을 부추기는 친구의 압력이나 유혹을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가꾸어간다.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며, 부모와 자녀간의 기대에 차이가 있다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자녀의 미래를 사랑으로 지켜본다.

여섯째, 가족 이외의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교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친한 친구·선배·친척 또는 다른 주변인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아본다. 또 전문적인 상담자에게 찾아가 가족상담이나 개인상담을 받아보도록 한다.

2) 학교에서의 대책



가족문제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닌 청소년들은 종종 자신들의 어려운 점들을 학교의 결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가출 징후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곤 한다. 따라서 무단 결석은 초기의 경고성 징후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출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과 관련하여 징계 즉, 교내 봉사, 사회 봉사 등의 처벌 위주의 학교 선도방침은 사실상 가출을 부추기는 셈이 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제도화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소외 또는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출 또는 비행 예방에 효과적이다.

가출은 오늘날 우리의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정서적·심리적 부적응을 비롯한 일탈행동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 학생들을 위한 인력적·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적어도 중학교부터 선택적으로 직업 교육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즐거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내에서 상담실의 기능을 확대하고 상담실 내 학교사회사업가를 배치하여 학생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평상시에도 이런 학생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성격상 학교부적응 학생, 결손가정의 학생 등을 미리 파악하여 수시로 격려하고 지도하며, 방학(여름 방학, 겨울 방학) 중에는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이나 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와 수시로 연계하여 상담, 관찰 및 지도가 이루어져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만이 유일한 대안일 수는 없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는 학교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다. 21세기를 맞아 교육개혁의 방향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환경에서의 대책

청소년들이 가출 후 즐겨 찾는 장소로 PC방, 유흥업소 출입이 늘어간다는 사실은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젊음의 열기와 정열을 수용하고 발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들이 취미, 여가활동, 종교 생활 등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이용 가능하고 동원 가능한 문화 공간을 확대하여 자아 의식이나 긍지 등 삶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교양이나 강의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새로운 욕구와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문제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 고용, 스포츠, 레크레이션, 상담과 같은 정책 및 프로그램이 모색되어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어떤 이유로든 일단 가출을 하였다가 곧바로 귀가하지 않는 경우, 하루나 이틀정도 부모님과 떨어져서 휴식을 취하거나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역할의 장이 필요하다. 한 예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지킴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유해업소 밀집지역의 의식 있는 상인, 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가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사회 지지망을 형성함으로써 쉼터, 상담기관 등의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제공되는 상담이나 쉼터의 서비스조차도 정보 교환 및 홍보부족 특히 정형화 된 접근 방식으로 그 효과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청소년 가출은 경찰서나 청소년 선도위원회 또는 상담 기관, 쉼터 종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전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담기관, 쉼터, 경찰,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종교단체 및 기타 민간 단체들이 함께 하는 통합적 연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는 경쟁적 관계 또는 독립적 관계로 그 활동과 문제 해결 대안이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도내에도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⁵³⁾, 서귀포시 청소년상담실⁵⁴⁾, 제주상담센터 등 몇 곳의 상담기관과 보호기관인 쉼터⁵⁵⁾가 있지만 가출 청소년만을 위한 전

53) 제주도 제주시 연동 2305-4 3층, 대표전화:(064)745-3003, 745-3366,

상담전화:(064)746-7179, E-mail : doum-1004@hanmail.net

54)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269-4, 전화(064)739-4002

55) · 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족사랑쉼터(시설장 백은숙), 1999년 11월 정식 인가 받은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로 1998년 개원한 가출청소년쉼터와 함께 운영되고 있음. 제주도 제주시 연동 273-35. 전화 (064)744-3278

· 제주YWCA여성의 피난처 통합상담소 쉼터(소장 송남두), 1990년 개원하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3~7일 정도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제주도 제주시 연동 300-2, 전화 (064)748-3040

· 한빛여성의 쉼터(시설장 강미경), 1999년 3월 개원한 모자 장기보호시설로 가정내의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과 그 자녀에게 전문상담과 쉼터를 제공하는 여성복지시설. 수

문적인 쉽거나 상담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출청소년 쉽터가 마련되면서 가출 청소년보호와 가출 예방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하였고 앞으로도 각 기관의 상담 위주의 역할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각 기관과의
연결 지원체제가 구축되어 청소년 가출 및 선도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하겠다.



용기간은 2~4개월.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1171, 전화 (064)739-7800

V. 결론 및 제언

가출 청소년은 한 개인 및 가정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주 지역에서도 가출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가출 청소년은 자신의 성장 발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가를 에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 고통을 안겨주고, 각종 비행 및 범죄에 연루되기 쉬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에서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그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역기능적인 가족 환경과 입시위주의 학교 환경 그리고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에서 가출 청소년은 '부모의 승인 없이 가정을 무단으로 이탈한 자'가 아니라, 때로는 탈출하고, 도피하고, 의지와는 무관하게 쫓겨난 자들로서 편견과 비난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보다 넓게 보호받고 이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제주 지역의 청소년 가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을 찾아 보려 하였던 바, 2002년도 제주도지방경찰청에서 집계된 가출 청소년은 364명으로 나타났지만 신고되지 않은 가출 청소년이 더 있을 것으로 보아 정확한 통계 및 그 원인이 정확히 분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향후 연구 및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제주 지역의 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세여서 제주 지역도 전국적인 요인과 비슷한 가정환경적 요인⁵⁶⁾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로 최근 들어 가출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의 증가 및 프

56) 『제주일보』, 2002년 8월 29일자

로그래미 개발되면서 가출 청소년 문제에 사회나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청소년 전문 상담기관이나 가출 청소년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보호하는 기관보다는 여성폭력이나 성폭력·성상담과 연계된 상담기관이 대부분이고 또 그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갈등이나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제주 지역의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유관기관을 살펴보면⁵⁷⁾

기 관 명	전화 번호	주 소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064)746-7179	제주시 연동 2305-4
서귀포시 청소년 상담실	(064)763-9191	서귀포시 중앙동 269-4 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제주상담센터	(064)744-3278	제주시 연동 273-35 제연빌딩 6/7층
제주청소년쉼터	(064)744-3276	"
(사)서귀포 상담센터	(064)732-3277	서귀포시 동흥동 450-2
청소년 보호전화	138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064)755-7034	
사랑의 상담실	(064)723-1004	제주시 이도2동 414
한국 BBS	(064)746-3003	제주시 연동 271-30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064)751-2828 1588-2828	제주시 이도2동 950-1
젊음의 쉼터 (가출 청소년 인성교육)	(064)744-7742	제주시 연동 324-5 미화연립 B/101
제주 YMCA	(064)722-4405	제주시 삼도1동 905
홍사단 제주도 지부	(064)721-1918	제주시 이도1동 1252-3

57) <http://www.hotline1366.or.kr/sup/13.html>

청소년 가출을 줄이려면 어쩌면 그들 자신들보다는 가정과 사회가 더 변화되어야 하고 책임지어야 할 부분이 많을 지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가출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가출을 최소화하고 가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가족화되고 이혼으로 인한 가정붕괴의 증가는 청소년 비행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고 그로 인해 청소년 가출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조사 결과, 청소년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기대, 이해 부족, 폭행이나 학대, 어려운 가정 형편, 무관심,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실제 가출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학업에 대한 부담 및 통제와 강제적인 규율, 또래 친구들의 유혹도 기타 요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 가출 경험자들도 가출의 첫 번째 이유로 '집이 싫어서'라고 응답할 만큼 예전부터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 환경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모는 자녀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그들의 고민과 갈등을 함께 해결하며 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면 청소년 가출과 비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제도 및 학교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 상급학교 진학만을 우선시하는 획일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방법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간의 형식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친밀감이나 인격적인 만남 등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내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이며, 학교 내 상담실이나 학교사회 사업을 활성화하여 가출의 사전 예방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위기 개입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 학교의 지나친 규율과 통제보다는 유화적인 지도로 가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해야겠다.

또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함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종교단체 부설 교육기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시설도 확충하여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일찌감치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청소년 문화시설 및 쉼터 설치·확대가 요망된다.

청소년들은 무엇보다도 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 가출 시 무조건적인 귀가조치보다는 실제로 현실적인 위기 속에 있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 개입, 식사, 거처와 의료조치, 그리고 적절한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쉼터와 같은 치료 보호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가출 청소년의 보호시설은 전국적 분포를 갖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수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늘려야 할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유형을 참고하여 시설의 형태를 다양화시켜야 한다. 또 오락 및 여가활동 기능을 대폭 확대한 문화공간의 보완도 시급하다.

특히 제주 지역인 경우는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만을 위한 쉼터가 한 곳도 없으며, 현재 (사)제주상담센터 부설 가출 청소년 쉼터는 18세 미만인 청소년이 장기 3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나 다른 일반인의 쉼터 역할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시설 확충과 가출 청소년의 문제유형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⁵⁸⁾이 필요하다 하겠다.

58)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동, 직업탐색프로그램, 사회체육활동, 약물·성교육, 집단활동, 중

넷째, 청소년 유해환경 추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황금만능주의 사고를 가진 업주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유해 업소에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출 시 문제점으로는 유해환경에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청소년기를 거처온 성인들이 유해환경 감시 및 청소년 보호활동에 앞장서야 하며, ‘어른은 아이들의 본보기’라는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을 내 자녀처럼 관심을 갖고 유해업소 출입 및 접근을 차단한다면 비행이나 탈선에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불법 업소 단속·처벌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와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대부분 허용적 태도를 갖고 있고, ‘가출’이란 행위가 매우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가출 청소년을 문제아 취급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 가출 청소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사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쉽지 않고, 돌아간 후에는 편견과 비난에 시달리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의 개선·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 지역은 좁은 지역환경으로 한 번 비행을 저질렀거나 가출 경험이 있는 경우 주위에 금방 알려져 보는 이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가 있다. 청소년기에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 여기는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교활동, 독서활동, 개별상담, 학습지도, 놀이문화, 여가활동, 취미활동, 청소, 생활회의 등

여섯째, 청소년 유관기관들의 통합적 연결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⁵⁹⁾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들이 가출-비행-범죄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날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저연령화, 비행의 다양성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 가출 문제로부터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질적 서비스는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게다가 현재 제공되는 상담이나 쉼터의 서비스들조차도 정보교환 및 홍보부족 특히 정형화된 접근 방식으로 그 효과 또한 부족한 상태이다.

제주 지역에서 청소년 가출은 경찰서나 청소년 선도위원회 또는 상담기관, 쉼터 종사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전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는 경쟁적 관계 또는 독립적 관계로 활동과 문제 해결 대안이 미미한 상담기관, 쉼터, 경찰, 학교,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종교단체 및 기타 민간 단체들이 함께하는 통합적 연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선도를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이들 상담기관 및 보호시설의 홍보를 협동하여 극대화함으로써 제주도내 모든 청소년이 상담실을 이용한 문제해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59) 제주도청소년종합상담실(2002), 전게서, p122.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권이중(1993), 「청소년과 교육병리」, 양서원
- 권이중(1996), 「청소년학 개론(-신세대 이해와 지도-)」, 교육과학사
- 김향초(1998), 「가출 청소년의 이해」, 학지사
- 나 철(1992), 「청소년 가출의 처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문화체육부(2001), 「청소년백서」, 정부간행물
- 문화체육부(2002), 「청소년백서」, 정부간행물
- 안창규, 문선화, 전윤식 공저(1995), 「가출청소년과 학교관리체제」, 부산재단
연구 총서 제21집, 집문당
- 이상현(1997), 「소년비행학」, 박영사
- 이용교(1993), 「한국청소년 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출판부

2. 논문

- 권윤아(1998), “실업계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유형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가정학석사학위논문.
- 김만두(1993), “청소년 가출문제와 그 예방 모델에 대한 연구”, 강남사회복지학교
논문집.
- 김숙희(2000), “가출청소년의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초(1996), “가출청소년에 관한 연구”, 협성대협성논총7.
- 박경기(1998), “청소년 가출현황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박용선(1999),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인영(1999),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기철(1999), “가출청소년 쉼터 프로그램 연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옥란, 공미혜, 홍봉선, 남미애, 장수한(1998), “부산지역 여성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의식과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상담실.

이정자(1973), “청소년 가출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효경(2000), “청소년 가출과 가출충동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유자(1982), “한국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우영(1999), “스트레스 및 가족응집성이 청소년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표갑수(1980), “아동의 가출원인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4집,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강영봉(2002), “청소년가출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청소년현안문제토론1집 제주도 청소년종합상담실.

- 김성경(1997), “가출소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여름호.
- Albert R. Roberts(나동석·이용교 옮김, 1991), “가출청소년 연구”, 한국청소년연
구원.
- 박부일(1992), “청소년의 가출 예방 대책과 선도대책”, 통일로50.
- 박부일(1992),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한국청소년연구원.
- 박종규(1991), “청소년 가출 실태와 예방을 위한 역할 확대”, 아동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19집, 한국청소년연구원.
- 조학래(2000), “청소년가출의 예방 및 개입에 대한 연구”, 침례신학대 복음과 실
천6.
-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가출청소년 쉼터 운영 모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
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원(1999), “집 나가는 아이들”, 청소년가출, 재가출 예방 부모용
지침서.
- 한국청소년상담원(2000), “청소년의 가출”,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한국청소년상담원(2002), “가출청소년 상담정책연구”, 2002청소년상담연구보고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청소년 가출과 비행에 관한 연구”, 창신사.
- 홍연숙(2002), “가출청소년 복지서비스 현황과 대안”, 제주도 통권105호.

4. 제주지방 일간지

- 제민일보
한라일보
제주일보

Abstract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eenage Runaway and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 Based on the areas of Jeju province -

Hyun Soo-jin

Major in National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dvised by Prof. **Yang Gil-hyeon**)



In Korea, the number of runaway teenagers has steadily increased at relatively high rate per annum under the influence of material abundance and mammonism according to economic development.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eenage runaway cases as reported amount to about 100 thousand cases every year. Lately, the number of reported runaway cases has been suddenly increasing and the age of runaway teenagers becomes younger than ever.

This study addressed and outlined the cause and actual conditions of teenage runaway plus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as well via variou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3.

organizations or groups and previous literatures, in order to help prevent teenage runaway. Especially, it focused on identify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eenage runaway in Jeju province so as to care for teenage problems in Jeju province and seek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Teenage runaway cannot be attributed to only one of potential causes. It may result from an interaction of complex factors including home, school and local community or surroundings around teenager themselves.

Of course, major causes of teenage runaway may include lack of home function due to higher divorce rate in recent days, conflicts with parents, uniform school education focusing on entrance exam, companionship with delinquent schoolmates and so on.

Besides, the influx of unreasonable foreign cultures due to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has accelerated collapsing even good traditional cultures and morality. And some factors like consumption-oriented and merrymaking social surroundings entice our teenagers away from home.

Teenage runaway may lead to higher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s within society, while it has very close relationships with adult gangsterdom and revival or development of decadent business. What is worse, teenage runaway brings about a vicious circle of drawing acquainted buddies as follow-up runaway teenagers. Therefore, proactive prevention may be more important for teenage runaway than reactive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formal reports about teenage runaway as accepted at Jeju Provincial Police Agency in 2002, the number of runaway teenagers in Jeju province reaches 316 persons per annum.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actual number of runaway teenagers exceeds the formal record as described above,

because there are not a few teenagers who were not reported to police.

For the corresponding preventive measures, current measures such as legal punishment on runaway teenagers or temporal protection and accommodation have already met their boundary, because only those measures cannot prevent a chain of teenage runaway cases.

Thus, the prerequisite to minimize teenage runaway and resolve the questions of runaway teenagers can be outlined as follows:

1. Build up reliable and harmonious home circumstances.
2. Improve educational system and surroundings in school.
3. Install and expand teenage cultural centers and rest plaza, whether new or conventional.
4. Expel harmful surroundings from teenagers.
5. Convert social views and ideas about teenage runaway.
6. Build up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in connection with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eenagers, while preparing systematic and synthetic countermeasures to prevent teenage runaway and guide them into right directions.